일본 카가야 작가의 12성좌 별자리 일러스트

양자리

옛날 신화가 만들어지던 시대에 그리스의 테살리에 아타마스라고 불리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프릭수스와 헬레 두 남매가 있었는데, 이들이 아직 어렸을 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이들은 계모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다. 이 계모는 소설 속에 나오는 사악한 계모의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으므로 두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였던지 신들조차 아이들을 구해내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곳을 지나던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구출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헤르메스는 하늘로 돌아가 황금양피를 가진 초능력의 숫양한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와 아이들을 보다 행복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양에 태웠다. 아이들이 올라타자 양은 걷는 것처럼 쉽게 하늘을 날아올라 쏜살같이 동쪽으로 날아갔다. 두 아이는 양의 등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어린 헬레는 그만 붙잡고 있던 손을놓쳐 아래로 떨어지고말았다. 헬레가 떨어진 곳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는 해협이었는데 뒷날 사람들은 헬레의 가여운운명을 기억하고자 이 해협을 헬레스폰트라고 불렀다. 혼자 남게 된 프릭수스는 양을 타고 계속 날아가 흑해의 동쪽 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콜키스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그는 거기서 그곳의 왕인 에테스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살게 되었다. 프릭수스는 감사의 뜻으로 황금양을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 그 양의 황금양피는 에테스 왕에게 선물하였다. 제우스는 이 양의 공로를 치하하여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으며, 에테스 왕은 황금 양피를 잠자지 않는 용에게 지키게 하였다. 이 황금양피는 훗날 아르고호를 타고 온 야손이 이 나라의 공주 메데아의 도움으로 용을 무찌르고 다시 테살리로 가져가게 된다.

황소자리

황소자리에 얽힌 신화에는 크게 두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대신 제우스가 아름다운 공주 에우로파를 유혹하기 위해 변신한 하얀 소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의 신 이나쿠스의 딸 이오가 여신헤라에게 미움을 받아 변한 소라는 것이다. 앞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옛날 아게노르 왕이 다스리는 페니키아의 해변에 에우로파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에우로파가 시녀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을 산책하던 대신 제우스가 우연히 이들을 보게 되었다. 본래 바람둥이였던 제우스는 에우로파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에 반해버려 곧 사람에 빠지게 되었고, 눈처럼 하얀 커다란 소로 변하여 왕의 소떼 속에 섞여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에우로파와 그녀의 시녀들은 옆을 지나가던 왕의 소떼 속에서 곧 이 멋진 흰소를 발견하였고, 소의 유혹하는 눈빛에 사로잡혀 읜소의 곁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에우로파가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주자 흰소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에우로파의 일행은 흰소의 재롱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소에게 화환을 걸어 주거나 소의 몸을 만지며 장난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에우로파가 흰소의 등에 올라타 장난을 하는 순간 흰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바다로 내려가 크레테섬까지 헤엄쳐 간 것이다. 크레테에 도착한 제우스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에우로파를 설득시켜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한다. 두번째 신화도 역시 제우스의 바람기에서 비롯된 이야기이다. 강의 신 이나쿠스에게 이오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 제우스는 이오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매우 귀여워해 주었다. 그러나 이 일은 여신 헤라의 질투를 사게 되었고, 헤라의 미움을 받은 이오는 소로 변하는 불행을 겪게 된다. 소로 변한 이오는 괴물 알고스에게 밤낮으로 핍박을 받는데, 이미 소로 변한 이오의 울부짖음은 소의 목소리로 메아리칠 뿐 이나쿠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어느 날, 모래사장에 뿔로 이오라고 쓰고 있는 소를 보고서야 이나쿠스는 자식이 변한 모습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나쿠스는 소의 머리를 안고 울며 슬퍼하였지만 헤라의 주문을 풀 수는 없었다. 그 후 그곳에 나타난 괴물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치는 이오의 슬픈 이야기가 계속된다. 어느 신화를 보더라도 제우스에 의해 슬픈 운명을 겪게 되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린 별자리이다.

쌍둥이자리

겨울철의 밤하늘은 아름다운 일등성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만큼 그에 얽힌 전설이나 신화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목숨을 버려 가면서까지 형제간의 우의를 지켰던 쌍둥이자리의 신화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이야기이다. 이 별자리의 두 개의 밝은 별 카스토르와 풀룩스는 비슷한 밝기로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쌍둥이로 본 것은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카스토르와 풀룩스는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가 스파르타(Sparta)의 왕비 레다(Leda)를 유혹하여 낳은 쌍둥이 형제다. 이들은 또한 트로이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미모의 헬렌(Helen)과 남매지간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 쌍둥이 형제는 신의 아들답게 강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대의 최고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아 모든 면에서 남들을 능가하였다. 특히 카스토르는 말타기에 능했고 풀룩스는 권투와 무기 다루기에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동생 풀룩스는 불사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황금양피를 찾아나섰던 아르고 호의 일행으로 이 항해를 통하여 항해자와 모험가의 수호신으로 명성을얻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황금양피를 찾으러 떠난 아르고 호가 항해 도중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넘쳐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적이 있었다.이때 폭풍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아폴론신의 아들이자 음악의 천재인 오르페우스가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하프를 뜯었다. 그러자 갑자기 폭풍우가 멎으면서 바다가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순간 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카스토르와 풀룩스의 머리 위로 별들이 나타나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아르고 호의 사람들은 쌍둥이 형제가 하프소리에 감동하여 폭풍이 멎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들을 항해자와 모험가의 수호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아르고 호의 원정이 있은 후에 이들 형제는 아름다운 두 자매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 아가씨들의 약혼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불사신의 몸을 가진 풀룩스는 상처하나 입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으나 카스토르는 심한 부상을 당해 결국 죽고 말았다. 풀룩수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카스토르가 죽자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도 죽으려 하였지만 불사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다. 결국 풀룩스는 아버지 제우스를 찾아가 자신의 죽음을 부탁했다. 제우스는 이들 형제의 우애에 감동하여 이들이 하루의 반은 지하세계에서 나머지 반은 지상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허락했다. 그리고 이들 형제의 우애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이들의 영혼을 하늘에 올려 나란히 두 개의 밝은 별로 만들어 주었다.

게자리

게자리는 그리스 신화의 가장 뛰어난 영웅 헤라클레스(Heracles)의 발에 밟혀 죽은 불쌍한 게의 별자리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 게가 어떻게 헤라클레스의 발에 밟혀 죽었고, 또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신화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옛날 헤라클레스가 에우리테우스와의 속박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열두 가지의 고역을 겪었다. 그 중 두번째가 네메아 계곡의 괴물 물뱀 히드라를 퇴치하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를 잡기 위해 네메아 계곡에서 물뱀과 30일에 걸친 대 혈전을벌였다. 이 때 헤라클레스를 미워했던 헤라(Hera) 여신이 물뱀을 돕기 위해 게(Cancer) 한 마리를 보냈다. 게는 여신의 명령에 따라 물뱀과 싸우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발가락을 물었는데, 결국은 그의 발에 밟혀 한쪽 발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다. 여신 헤라는 자신을 위해 싸우다 죽은 이 불쌍한 게에 대한 보답으로 그 시체를 하늘에 올려 별자리가 되게 해주었다. 그러나 한쪽 다리를 잃은 불쌍한 게의 시체는 하늘에서도 어두운 별들로 꾸며졌기 때문에 밝은 별들 틈에서 잘 보이지 않는 채로 지금까지 쓸쓸하게 남아 있다.

사자자리

사자자리에 얽힌 신화도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이 온통 혼란 속에 빠져 별들이 그들의 자리를 떠나고 혜성이 하늘을 날아다니던 적이 있었다. 이 때 달에서 불타는 유성 하나가 황금사자의 모습으로 그리스의 네메아(Nemea) 골짜기에 떨어졌다. 유성이 변하여 된 이 사자는 지구의 사자보다 몸집이 훨씬 컸고 성질 또한 포악해서 네메아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사자는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고 몸집도 점점 커져갔으나 네메아사람들의 힘으로는 이 사자를 어쩔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에우리테우스(Eurystheus) 왕은 당대의 영웅 헤라클레스에게 사자를 처치할 것을 명령했다. 네메아 골짜기에 나타난 헤라클레스는 활과 창, 방망이를 들고 사자와 싸워 보았지만 이런 무기로는 결코 사자를 무찌를 수 없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무기를 버리고 사자와 뒤엉켜 생사를 가르는 대격투를 벌이게 되었고, 신의 아들답게 사자를 궁지로 몰아넣어갔다. 오랜 저항 끝에 사자는 헤라클레스의 힘을 당하지 못하고 목이 졸려 죽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네메아의 사람들은 사자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았고 헤라클레스는 승리의 대가로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불침의 사자 가죽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 신화의 그림에서 헤라클레스가 입고 있는 사자가죽이 바로 이것이다. 신의 왕 제우스는 아들 헤라클레스의 승리를 치하하고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사자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

처녀자리

처녀자리의 전설 중 가장 널리 있는 이야기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Demeter)의 딸 페르세포네에 얽힌 신화이다. 어느 맑게 개인 가을날 지하세계의 지배자인 하데스(Hades)가 땅위의 옥수수밭을 거닐고 있었다. 하데스는 마침 그곳에 나와 있던 어어쁜 페르세포네를 발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서 페르세포네를 자신의 마차로 납치했다. 땅의 갈라진 틈을 통해 자신의 지하세계로 내려간 하데스는 거기서 울며 사정하는 페르세포네를 강제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부족할 것이 없이 그녀를 만족시켜 주었지만 그녀는 땅위의 언덕과 계곡, 드넓은 평원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슬픔에 빠지곤 하였다. 그녀가 지하세계로 납치된 후 딸을 잃은 토지의 여신 데메테르는 슬픔으로 인해 큰 비탄 속에 빠져 버렸다. 토지의 여신이 슬퍼하자 땅은 메말라갔고, 들에서는 곡식이 이삭을 패지 못했다.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는 땅이 황폐해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지하세계의 왕인 자신의 형 하데스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기에 이들을 화해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만들었다. 결국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일 년의 반 동안만 지하세계에서 머무르고 나머지 반 동안은 지상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페르세포네는 매년 봄이면 하늘의 별자리가 되어 지하세계로부터 동쪽하늘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 후로 겨울에는 추위가 닥쳐오고 풀이 돋아나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토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지하세계에 있는 딸을 그리워하여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한다. 그리고 새 봄이 와서 땅속으로 부터 페르세포네 즉, 하늘의 처녀자리가 나타나게되면 데메테르의 슬픔이 가시게 되어 땅은 다시 활기를 띠고 무성한 나뭇잎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다.

천칭자리

먼 옛날 지상에는 황금의 시대와 은의 시대가 있었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매우 착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신들은 인간과 더불어 땅에 내려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인간은 매우 부도덕해지고, 신들은 더 이상 타락한 땅 위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더러움을 모르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에아는 인간들에게 사이 좋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을 꾸준히 가르쳤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차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게 되었고, 신은 안중에도 없는 듯 자기 멋대로 설치고 다니게 되었다.결국 참다 못한 신들은 인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상을 떠나 버렸다. 그래도 아스트라에아는 인간을 내버리지 않고 혼자 남아서 정의를 계속 설교하였는데, 전쟁이 끓임 없이 일어나고, 더 이상 지상에 머무를 수 없게 되어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지상에서의 인간 교화에 실패한 아스트라에아였지만,그녀는 결코 인간을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아스트라에아는 정의를 판단하는 천칭을 들고 하늘의 별자리가 되어 인류에게 정의를 베푸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아스트라에아는 처녀자리가 되었고 천칭도 역시 하늘의 별자리로 남게 되었다.

전갈자리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 별자리의 전갈은 사냥꾼 오리온(Orion)을 죽이기 위해 아폴로(Apollo)신이 풀어놓은 거대한 전갈로 전해진다. 전갈자리가 뜰 때 서쪽하늘로 오리온자리가 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일설에는 전갈을 풀어 놓은 것이 여신 헤라(Hera)라고 한다. 헤라여신이 전갈을 풀어 오리온을 죽이고자 한 것은 오리온이 '자기보다 강한자는 없다!'라고 거만하게 자랑하고 다녀서였다. 어느 이야기가 맞든지 전갈이 오리온을 죽이기 위해 지금도 하늘에서 오리온을 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전갈은 하늘에서 오리온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항상 오리온이 앞서서 떠오르고 지기 때문이다.

사수자리

반인반마의 켄타우르인 키론은 학문과 무술이 몹시 뛰어나 그리스 젊은 영웅들의 선생님이었다. 이 별자리는 키론이 아르고호(Argonaut)를 타고 황금 양피(Golden Fleece)를 찾아 나선 제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황도상에 만든 것이라고 한다. 키론은 모든 인간을 초월하고 대부분의 신들보다도 총명했던 자였다. 뛰어난 교육자로 명성을 얻기도 했고 천구상에 별자리를 만들어 영구히 사람들의 지표가 되기도 했다. 그가 해놓은 별자리 정리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가 죽은 뒤 제우스가 그를 하늘의 밝은 별자리로 만들려고 했을 때 공간이 없었을 정도였다. 제우스는 결국 그를 잘 보이지 않는 남쪽하늘에 올려 놓을 수 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켄타우루스자리(Centaurus)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지방에서 그 일부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염소자리

염소자리라고 해도 성좌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은 물고기인 형태를 하고 있다. 신화에서는 이 괴물을 목동의 수호신인 판(Pan)의 변신이라고 전하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기 전에 신화에 나오는 판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옛날 아르카디아(Arcadia)의 계곡에 목동들의 수호자인 판이라는 신이 살고 있었다. 판은 요정인 시링크스(Syrinx)의 아름다움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남자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판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판은 달아나는 시링크스를 쫓아가며 애원을 하였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광야를 가로질러 계속 도망쳤다. 그러나 얼마 후 눈 앞에 커다란 강이 나타났고 그녀는 더 이상 달아날 수 없게 되었다. 판이 머뭇거리는 그녀를 막 붙잡으려는 순간, 시링크스는 그녀의 자매인 강의 요정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강의 요정들으 그녀를 강가에 돋아나는 갈대덤불로 변하게 해주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놓쳤지만 판은 결코 그녀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었다. 강가를 떠나지 못하고 며칠을 방황하던 판은서글프게 울부짖으며 그녀가 변하여 된 갈대를 꺽어 그 줄기로 아름다운 음을 내는 풀피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풀피리에 그녀의 이름을 붙여 항상 그녀를 기억하고자 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판이 반은 염소이고 반은 물고기인 이상한 괴물로 변해 하늘의 별자리가 된 이야기를 해보자. 어느 날 판이 다른 신들과 어울려 나일(Nile)강가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막 연회가 끝나고 판이 그의 풀피리를 불려는 순간 갑자기 무서운 거인족 티폰(Typhon)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신들은 화를 모면하기 위해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여 달아났다. 판도 주문을 외우면서 물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주문이 섞여 버렸다. 그래서 그의 상반신은 뿔과 수염을 가진 염소로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다. 판이 주문을 바꾸려는 순간, 멀리서 티폰에게 붙잡힌 제우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판은 주문을 바꿀 사이도 없이 급히 풀피리를 입에 물고 살을 에이는 듯한 처절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소리를 듣자 우둔한 티폰은 겁을 먹고 제우스를 놓아둔채 달아나 버렸다. 판의 재치있는 도움으로 살아난 대신 제우스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늘의 별들 속에 반양반어인 바다염소(Sea-Goat)를 만들어 판의 도움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였다. 그리스인들은 이 별자리를 '판의 별자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위와 같은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병자리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물병자리는 독수리(Aquila)에게 납치당해 신들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하게 된 트로이(Troy)의 왕자 가니메데스로 알려져 있다. 청춘의 여신인 헤베(Hebe)는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발목을 삐어서 더 이상 달콤한 술과 음식을 나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녀의 일을 대신할 아름다운 젊은이를 찾기 위해 독수리의 모습으로 지상으로 내려와 이다(Ida)산에서 트로이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아름다운 왕자 가니메데스를 발견하고 그를 납치해 갔다. 그 후 가니메데스는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늘의 독수리자리는 변신한 제우스의 모습이고, 불멸의 컵에 물이 넘쳐 흐르도록 가득 채우고 있는 물병자리(aquarius)의 잘 생긴 젊은이는 바로 납치된 가니메데스라고 한다.

물고기자리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가 괴물 티폰에게서 도망치기 위하여 변한 물고기가 바로 남쪽물고기자리라고 전해지고 있다. 원래는 약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18세기경 프랑스의 천문학자 라랑드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 정확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